



2023. 4. 3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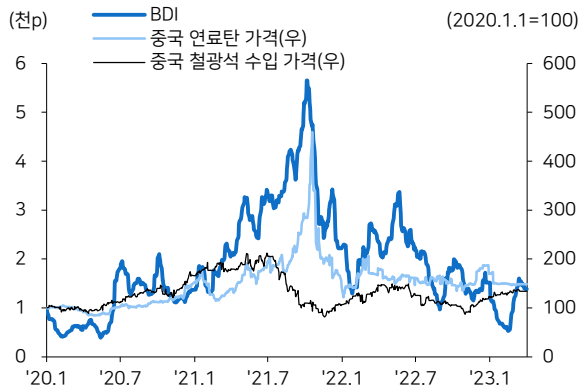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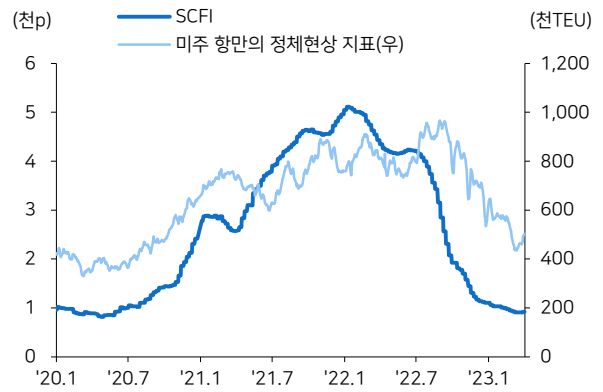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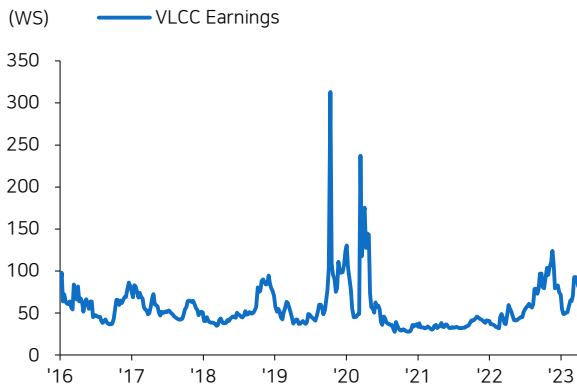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89.0p(-1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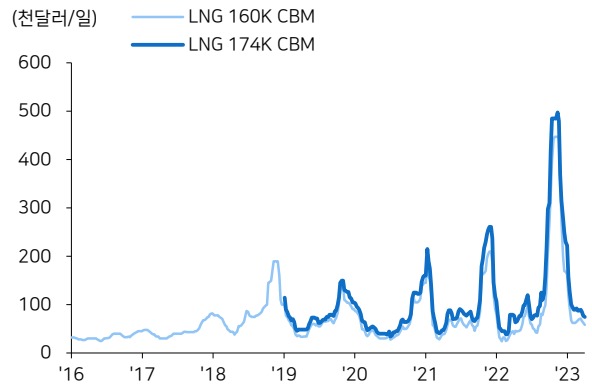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23.8p(+15.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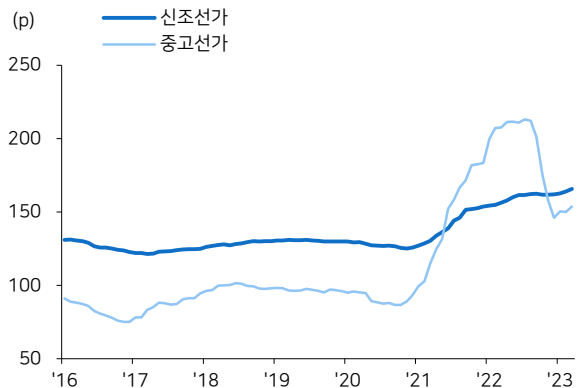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1.5p(-7.6p WoW)



LNG Spot 운임 58.5천달러(-4.5천달러 WoW)
75.0천달러(-2.5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5.6p(+0.4p WoW)
153.5p(+1.9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62.0달러(+2.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대우조선해양, EU도 승인...韓 공정위만 남았다

유럽연합(EU)까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됨. EU는 오는 18일 결과 발표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빠르게 3주만에 승인을 내렸다고 알려짐. 최종 기업결합이 끝나기까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만 남았다고 알려짐. (중앙일보) (<http://bit.ly/3ZQjut3>)

OPEC+, 하루 116만 배럴 '자발적' 감산... "시장 안정 위한 결정"

OPEC+ 주요 산유국들이 일일 116만배럴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다고 보도됨. 사우디아라비아는 4월부터 생산량을 일일 50만배럴 줄일 예정으로 언급함. 이번 자발적 감산은 2022년 10월 OPEC+ 회의에서 결정된 대규모 감산 정책과 별도로 실행되는 추가적 조치로 언급됨. UAE도 5월부터 연말까지 일일 14.4만배럴 감산에 동참한다고 언급됨. 다만, 설비부족으로 이미 기준치에 못 미치는 회원국들은 이번 자발적 감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http://bit.ly/3K78QYX>)

현대미포조선, 중형 PC선 4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3척을 2,401억원(척당 4,62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보도됨. 2025년 11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현대미포조선은 2023년 발주된 PC선 총 27척 중 15척을 수주하며 약 5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https://bit.ly/3nsVuyn>)

삼성중공업, 나이지리아 해양플랜트 개조 본계약 체결

삼성중공업이 3월 나이지리아에서 FPSO 개조 사업을 따냈다고 보도됨. FPSO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2분기 말까지 인도할 예정임. (더구루) (<https://bit.ly/40xAEwp>)

신형 케미컬탱커 수요 증가

신형 IMO-type 케미컬탱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됨. 현 케미컬 탱커 선대의 대부분이 2000년대 중반에 발주된 선박인데다 석유 메이저들의 용선 수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짐. 케미컬 탱커 용선료가 높아 일부 선사들이 슬롯이 부족해지기 전에 탱커를 서둘러 주문하고 있다고 언급됨. (선박뉴스) (<https://bit.ly/43bWuaP>)

Rise of the shadow fleet set to stall despite Russian production highs

러시아산 원유 생산 증가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하는 '그림자 선대' 규모가 현재 400척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을 전망으로 보도됨. 선대가 더이상 확대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함. S&P Global은 2월말 기준 그림자 선대를 443척 수준으로 예상했다고 언급됨. 2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 수준인 11MBPD를 초과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bit.ly/3nFxTuD>)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